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차경숙*, 전원희**, 홍성실***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생***

Kyeong-Sook Cha(chamelda@hanmail.net)*, Won-Hee Jun(jwh917@hanmail.net)**,
Sung-Sil Hong(hss9456@hotmail.com)***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정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A시와 Y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27명이었다.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불안과 문제해결능력 수준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반응과 일반적 특성 중 지각된 대인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사회불안에 대한 설명력은 23.6%이었다. 결론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 인지적 왜곡을 탐색하고 이를 수정하는 교육과 상담 및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적용은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 중심어 : | 사회불안 | 문제해결능력 | 간호학생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A total of 227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with SPSS WIN 18.0. The mean scores fo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anxiety were at the intermediate level. Problem solving ability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included cognitive reaction within the seven problem solving ability subscales and percei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2.6% of social anxiety. As a result, to decrease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ors should develop 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s to change cognitive distortions presented in unfamiliar social situations and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bility.

■ keyword : | Social Anxiety | Problem Solving Ability | Nursing Student |

* 이 논문은 2013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3-0322).

접수일자 : 2014년 05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7월 17일

수정일자 : 2014년 07월 01일

교신저자 : 전원희, e-mail : jwh917@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달단계 상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및 취업을 위한 내외적 준비 등의 많은 사회적 과제수행에 도전받는 시기이다. 이러한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은 성인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학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발달과업수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발달과업 완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불안을 들 수 있다[2][3].

사회불안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 혹은 사회적 수행에서 나타나는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한 정서와 회피반응으로 정의되며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이후 직업기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유발시킬 위험이 높은 심리적 장애이다[4][5].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또는 임상적 수준의 사회불안이 대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일반적이며 대학생의 22%가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또한 사회불안은 대학생들의 학업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진로 탐색활동과 진로 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 발달을 저해하고[7][8] 불면증과 물질 사용 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고학년에서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11]. 한편, 간호대학생들은 자신들의 간호수행이 대상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피로감, 위통과 같은 신체증상을 경험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 회의감을 갖

기도 한다[12][13]. 이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업관련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불안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은 진로발달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7][8] 학년이 낮을수록 대학생화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고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14] 더욱이 사회불안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5]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을 평가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지과정을 매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5]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대처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불안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은[17]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으로 개인이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해결방법을 선택 및 시도하는 능력으로[17] 문제해결능력이 좋은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주변에서 대처 자원들을 찾으려는 행동을 통해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는[18] 반면, 문제해결능력의 결여는 비사회화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위축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19]. 그러므로 문제해결능력은 간호대학생이 친숙하지 않은 임상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조절에 대한 자신감과 대처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인애착유형[16][20], 부정적 자기개념[21], 역기능적 인지와 관련된 변수들[15], 외상경험[22]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문제해결능력과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실무현장에서 대상자의 복잡한 건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임상적 추론 및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간호대학생이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배양해야 할 주된 과제라 할 수 있다[2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 시기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로 볼 수 있는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접근하는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정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불안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A시와 Y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1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22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 95%, 예측요인 8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160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은 Watson과 Friend[24]가 개발하고 이정윤과 최정훈[25]이 번안한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Social Avoidance Distress Scale; SA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에서 사회적 회피척도는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경향을 반영하고 있고 불안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총 28문항으로 사회적 회피 14문항과 불안 14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정윤과 최정훈[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2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D'Zurilla와 Nezu[17]가 개발한 총 70문항의 사회적 문제해결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SPSI)를 박소라[26]가 요인분석을 통해 각 하위척도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3문항씩을 제외하고 총 4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해결지향과 문제해결기술을 측정하는 2개 주요척도와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척도 중 문제해결지향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문제해결기술은 문제규정과 구성화, 대안적 해결책 산출, 의사결정, 해결책 수행과 확인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박소라[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6~.89이었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A시와 Y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해당 대학의 간호학과 강의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휴식시간 동안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익명성에 대해 명시하였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이 완성된 설문지는 일괄 수거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36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227(9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제해결능력, 사회불안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은 정규성 검정을 위한 Kolmogorov-Smirnov 분석에서 $p > .05$ 를 충족하였고 첨도 및 왜도의 범위가 ± 1.5 사이 값을 보여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test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07명(91.2%), 남학생 20명(8.8%)이었다.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144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59명(26.0%), 자취가 17명(7.5%), 친척집이 7명(3.1%)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43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03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 76명(33.5%), '매우 만족' 31명(13.7%), '불만족' 17명(7.5%) 순이었다. 지각된 부모와의 관계는 '보통' 44명(19.4%), '좋음' 109명(48.0%), '매우 좋음' 74명(32.6%)이었고 지각된 대인과의 관계는 '나쁨' 9명(4.0%), '보통' 39명(17.1%), '좋음' 128명(56.4%), '매우 좋음' 51명(22.5%)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7)

특성	구분	n(%)
성별	여자	207(91.2)
	남자	20(8.8)
거주형태	부모님과 함께	59(26.0)
	자취	17(7.5)
	기숙사	144(63.4)
	친척집	7(3.1)
종교	개신교	31(13.7)
	천주교	8(3.5)
	불교	45(19.8)
	무교	143(63.0)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	31(13.7)
	만족	103(45.3)
	보통	76(33.5)
	불만족	17(7.5)
지각된 부모와의 관계	보통	44(19.4)
	좋음	109(48.0)
	매우 좋음	74(32.6)
지각된 대인과의 관계	나쁨	9(4.0)
	보통	39(17.1)
	좋음	128(56.4)
	매우 좋음	51(22.5)

2.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정도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15 ± 0.37 점이었다.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문제해결 지향에서는 인지적 반응 3.21 ± 0.46 점, 정서적 반응 3.32 ± 0.67 점, 행동적 반응 3.29 ± 0.61 점이었고, 문제해결 기술에서는 문제규정과 구성화 2.95 ± 0.57 점, 대안적 해

결책 2.96±0.55점, 의사결정 3.27±0.48점, 해결책 실행과 확인 3.06±0.45점이었다. 대상자의 사회불안 정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2.75±0.44점이었고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사회적 회피 2.59±0.45점, 불안 2.92±0.52점이었다 [표 2].

표 2.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정도 (N=227)

변수	Range	M(SD)	Min	Max	
문제해결능력	1.0~5.0	3.15(.37)	1.79	4.77	
문제 해결 지향	인지적 반응	1.0~5.0	3.21(.46)	1.43	5.00
	정서적 반응	1.0~5.0	3.32(.67)	1.00	4.86
	행동적 반응	1.0~5.0	3.29(.61)	1.14	4.86
문제 해결 기술	문제규정과 구성화	1.0~5.0	2.95(.57)	1.43	5.00
	대안적 해결책	1.0~5.0	2.96(.55)	1.29	5.00
	의사결정	1.0~5.0	3.27(.48)	2.14	4.86
	해결책 실행과 확인	1.0~5.0	3.06(.45)	1.86	4.86
사회불안	1.0~5.0	2.75(.44)	1.53	4.31	
사회적 회피	1.0~5.0	2.59(.45)	1.43	4.07	
불안	1.0~5.0	2.92(.52)	1.57	4.7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은 전공만족도(F=3.65, p=.031)와 지각된 대인관계(F=7.2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에서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사회불안 점수가 높았고 대인관계를 '보통'으로 지각한 경우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으로 지각한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 (N=227)

변수	사회불안		
	M(SD)	t/F	p
성별			
여자	2.75(.44)	0.38	.702
남자	2.71(.43)		
거주형태			
부모님과 함께	2.65(.38)	1.40	.243
자취	2.82(.38)		
기숙사	2.70(.46)		
친척집	2.78(.45)		
종교			
개신교	2.78(.51)	0.97	.410
천주교	2.82(.70)		
불교	2.71(.41)		
무교	3.01(.41)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 ^a	2.55(.48)	3.65	.031 a<d
만족 ^b	2.74(.39)		
보통 ^c	2.81(.47)		
불만족 ^d	2.94(.36)		
지각된 부모와의 관계			
보통	2.82(.48)	2.49	.085
좋음	2.78(.43)		
매우 좋음	2.66(.42)		
지각된 대인관계			
나쁨 ^a	2.97(.19)	7.25	<.001 b>c,d
보통 ^b	2.98(.37)		
좋음 ^c	2.72(.39)		
매우 좋음 ^d	2.60(.54)		

4.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37, p<.001).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대안적 해결책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은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4.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N=227)

변수	사회불안
	r (p)
문제해결능력	-.37 (<.001)
인지적 반응	-.43 (<.001)
정서적 반응	-.34 (<.001)
행동적 반응	-.23 (<.001)
문제규정과 구성화	-.22 (.001)
대안적 해결책	-.11 (.090)
의사결정	-.18 (.007)
해결책 실행과 확인	-.27 (<.001)

5.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전공만족도와 지각된 대인관계,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전공만족도와 지각된 대인관계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13으로 나타나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99로 1.0이하였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반응(β=-.42, p<.001)과 일반적 특성 중 지각된

대인관계($\beta=.22, p<.001$)는 사회불안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는 사회불안 전체 변량의 22.6%를 설명하였다[표 5].

표 5.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27)

변수	β	t	p	R ²	Adjusted R ²	F (p)
인지적 반응	-.42	-7.21	<.001	.232	.226	33.90 (<.001)
지각된 대인관계*	.22	3.77	<.001			

* 더미변수(보통: 1, 나쁨, 좋음, 매우 좋음: 0)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정도 및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18]에서 3.20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3.41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학습자들의 지식이 높을수록 보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28][29].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전 학년을 포함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18][27] 달리 본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지향에서는 정서적 반응(3.32점)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인지적 반응(3.21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경향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며 주의 깊게 문제를 인식하려는 경향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잠재적 어려움을 상상하게 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감소

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18][30]. 이와 같이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는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 실제적인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인지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문제해결기술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영역은 의사결정(3.27점)이었고 문제규정과 구성화(2.95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대안적 해결책(2.96점) 또한 유사한 수준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능력 중 의사결정능력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자신이 생각한 문제해결방법들 중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하는 능력은 부족하여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비효율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승애[32]는 현재 간호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이해나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 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부딪치는 많은 도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는 실제적인 문제해결기술 특히, 문제규정과 구성화와 다양한 대안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기술들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여 교과목 내에 통합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불안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75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3.04점 보다는 낮았고 강석기 등[33]의 연구에서 2.58점 보다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한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 점수(2.71점)와 유사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불안 수준은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2.92점)가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

하는 경향(2.59점)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35].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과정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환경,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 급격히 증가된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과제에 노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이 증가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함으로서 본인의 능력보다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일 수 있다[6][8]. 이러한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저학년에서부터 사회적 상황에서 증가되는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불안 정도는 전공만족도와 지각된 대인관계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불안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긍정적 사고 성향과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후 사회불안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적 심리특성에 대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16][20]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는 간호대학생들이 부모 이외에 다른 주변 인물들과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이루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입학 초기부터 학생들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22][36]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사회불안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및 사회불안 관련요인들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안적 해결책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은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되어 사회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문제해결능력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37]와 일치된 결과였고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보고한 연구[30]와는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반응과 일반적 특성 중 지각된 대인관계이었으며 특히, 인지적 반응은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를 이해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들[20][21]과 일맥상통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문제 상황에 대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과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적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맥락에서[17] 수용적인 인지적 반응의 문제해결지향성이 낮은 사회적 상황 또는 수행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회피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대인관계 애착을 지각하는 경우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에 대한 기대표상이 부정적이고 불안정하게 작용하여 관계에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

결론적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수용적, 긍정적인 인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지 재구성 교육과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연구대상자가 1학년 학생으로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은 전공만족도와 지각된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제해결능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인지적 반응과 일반적 특성 중 지각된 대인관계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사회불안 전체변량의 22.6%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며 최근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도입하여 사회불안에 접근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고 증재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 선정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불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1] 이만제, “대학생 인터넷게임 중독 집단의 의사소통유형 및 문제해결능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108-119, 2009.
- [2] J. Davila and J. G. Beck, “Is Social anxiety associated with Impairment in Close relationships?,” Behavior Therapy, Vol.33, No.3, pp.427-446, 2002.
- [3] R. M. Shepherd, “Volitional strategies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Quarterly, Vol.9, No.4, pp.1-12, 2006.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1994.
- [5] 이경은, 하은혜,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제11권, 제2호, pp.39-57, 2011.
- [6] E. Y. Strahan,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4, No.2, pp.347-366, 2003.
- [7] 이현주, “대학생의 성별 및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진로개방성, 진로탐색활동, 진로 정체감의 차이”, 교육학 연구, 제46권, 제1호, pp.79-99, 2008.
- [8] 허재홍, 조용래, “자기 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제5권, 제2호, pp.85-100, 2005.
- [9] J. D. Buckner, R. A. Bernert, K. R. Cromer, T. E. Joiner, and N. B. Schmidt, “Social anxiety and Insomnia: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ve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Vol.25, No.2, pp.124-130, 2008.
- [10] J. D. Buckner, N. B. Schmidt, and A. M. Eggleston, “Social anxiety and Problematic alcohol consumption: The mediating role of drinking motives and situations,” Behavior Therapy, Vol.37, No.4, pp.381-391, 2006.
- [11] H. Edwards, S. Smith, M. Courtney, K. Finlayson, and H. Chapman, “The Impact of Clinical placement location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preparedness for practice,” Nurse Education Today, Vol.24, No.4, pp.248-255, 2004.
- [12] N. Seyedfatemi, M. Tafreshi, and H. Hagani,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ioMed Central Nursing, Vol.6, No.11, pp.11-20, 2007.
- [13] 이은혜, *사회공포증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상담*,

-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김경옥, 조윤희,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97-218, 2011.
- [15] 허재홍, “사회불안 발생과정에 자기효능감과 체험회피가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4호, pp.1173-1189, 2008.
- [16] 조영미, 이희경,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1227-1245, 2013.
- [17] T. J. D'zurilla and A. M. Nezu,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SPSI),” *Psychological Assessment*, Vol.2, No.2, pp.156-163, 1990.
- [18]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pp.33-42, 2013.
- [19] 엄태완, 이기영,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8권, pp.5-35, 2004.
- [20] 이기은, 조유진, “성인애착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6권, 제2호, pp.191-204, 2009.
- [21]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과 정서조절곤란이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제9권, 제1호, pp.75-89, 2009.
- [22] 허재홍,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 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3호, pp.593-611, 2006.
- [23] F. Terzioglu, “The 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14, No.7, pp.340-347, 2006.
- [24] D. Watson and R. Friend,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3, No.4, pp.224-257, 1969.
- [25] 이정운, 최정훈,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6권, 제2호, pp.251-264, 1997.
- [26] 박소라, *정신분열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27] 이현주, 오윤자,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1호, pp.157-173, 2011.
- [28] 양수, 이경주, 유숙자, “정신보건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인식정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6권, 제2호, pp.378-387, 2002.
- [29] 최희정, “문제중심학습이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및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5호, pp.712-721, 2004.
- [30] 이경란, 박기환,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3권, pp.97-109, 2007.
- [31]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28-337, 2012.
- [32] 양승애,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간호행정학회지*, 제16권, 제4호, pp.389-398, 2010.
- [33] 강석기, 고수현, 한상훈, “대학생의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정서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연구논총*, 제32권, 제2호, pp.1-27, 2011.
- [34] 김선미,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사용수준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회피 및 불안과의 관계*, 충남대

학교석사학위 논문, 2014.

- [35] D. A. Moscobitch, M. K. Suvak, and S. G. Hofmann, "Emotional response patterns during Social threat in Individuals with Generalized social anxiety disorder and Non-anxious control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24, No.7, pp.785-791, 2010.
- [36] 오경자, 양윤란,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55권, 제3호, pp.557-576, 2003.
- [37] 윤기숙, *여고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이 문제해결력 및 부정적 자기진술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저 자 소 개

차 경 숙(Kyeong-Sook Cha)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사)
 - 200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염관리, 성인간호, 만성질환간호

전 원 희(Won-Hee Jun)

정회원



- 199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간호교육

홍 성 실(Sung-Sil Hong)

정회원



- 199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